

발행인 칼럼

2층1효 전국백일장 공모전을 알리며



가금현 발행인

올해로 12회째 맞는 2층1효 전국백일장.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모전으로 비대면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보면 잘된 일인 것 같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고 했는지 심사위원회에서 시제 또한 가볍게 제시한 것 같다. 지난해까지 심사위원회에서 부여된 시제를 보면 논문을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제였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였다. 하지만 올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제가 주어져 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도전해 볼 만 하겠다 싶다. 시제는 초등저(초등 3학년 이하)는 보고 싶은 얼굴, 초등고(3학년 이상) 그리운 것들, 중등부 추억, 고등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일반

부 기습에 되새기는 일이다. 시제를 제시한 심사위원회 지요하 위원장은 '2층1효 전국 백일장'을 12년 역사상 두 번째로 현장 대신 '백일장'이 아닌 '공모전'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악마와도 같은 바이러스라고 했다. 그는 현장 대신 백일장이 아닌 공모전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은, 주최 측의 고심이 컸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2층1효, 즉 충효의 정신과 표상을 기리는 일은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최 측의 의지를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공모전에 나서는 참여자들에게 주의점과 글쓰기의 중요성으로 '공모전은 시간이나 행동 제약 없이 집과 학교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자료들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컴퓨터 검색으로 얻은 정보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와 짜깁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글은 독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붙이기나 짜깁기를 한 글은 심사자가 쉽게 가려낼 수 있고, 우선 문맥에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며 컴퓨터 검색으로 얻은 정보들을 깊이 숙지하고 체화시켜 자

기 것으로 만든 다음 그것으로 글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2층1효 전국백일장대회는 지난해 대회까지 심사로 인한 시시비비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구나 주최 측은 심사위원회에 시제부터 심사와 심사평까지 일괄 일임하고 있다. 특히 심사평을 통해 종합평점을 비롯한 상위 입상자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유로 2층1효 전국백일장 공모전은 상급과 상을 타기 위한 행위로 이뤄진 짜깁기 등의 글들은 철저히 가려내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무게중심으로 보는 평가는 바로 주최 측으로부터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이지만, 독창성이 살아 있고 문장력이 돋보여서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글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힌트를 준다면 주최 측이 제시한 주제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 고유의 제목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2층1효 전국백일장 공모전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CTN 논단

아리랑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아리랑은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민족의 애환이 담겨있는 고유 민족의 애창곡이지만 언제부터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리랑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경기도의 경기아리랑 등으로 내려 오고 있다. 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로 선정되기도 하고 뉴욕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아리랑의 아리의 뜻은 고운이고 랑은 남이다. 아리가 고대 한국에서 고운 곱다. 아름다운 아름답다의 뜻으로 쓰인 흔적은 아리따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골에서는 아리는 아직도 고운, 곱다의 뜻으로 사용되

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리랑의 첫째 뜻은 고운남, 둘째는 그리운 뜻을 담고 있다. 1926년 나운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과 감독까지 맡았던 '아리랑'이라는 영화 주제로 불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아리랑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식,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 41회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 북한 단일팀 참가시,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응원가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아리랑은 우리 고유의 창으로 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애창곡이다.

[만물창고]

의인막용(擬人莫用)하고 용인물의(用人勿疑)하라



신동호 CTN교육신문 편집국장

의인막용(擬人莫用)하고 용인물의(用人勿疑)하라는 말은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는 본문은 김구(金九, 1876-1049) 선생께서 독립운동할 때의 좌우명(座右銘)이었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함께 할 동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그와 생사를 함께 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 큰 재산은 사람인 것이다. 사람을 잘 써야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 명제상이었던 관중(管仲)은 '천하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람 얻기를 다룬다.' 爭天下者必先爭人 (쟁천하자 필선쟁인)이라고 하였다.

요즘 세대에 필요한 말이다. 토사구팽이 난무하고 인물은 인물을 알아볼 터 인물이 아니기에 인물을 몰라보고 내치고 소위 말해서 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모르고 간신배를 좋아하는 얼빠진 군상들 정말 한심하다. 정치하려 한다면 인물을 주위에 많이 두고 나에게 회초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또 평소 애를 만들지 말고 존경 받을 일들을 하며 봉사와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집을 멀리하면 돌아섰던 적도 돌아온다.

로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이번 대회에서 양촌초등학교, 노성중학교에서 금상을 수상해 도대회에서 타지역 학생들과 역량을 겨루게 됐다. 이진구 교육장은 "STEAM교육이 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논산교육지원청, 융합과학 대회 개최

2021 충남청소년 과학탐구 융합과학 논산·계룡 지역 대회

지난 4월 30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한 놀미융합체험센터에서는 초등학교 20팀, 중학교 10팀이 참가한 충남청소년 과학탐구 융합과학 논산·계룡지역대회가 열렸다. 초등학교는 내진테이블 설계, 중학교는 명함카드 구조물 만들기는 주

제로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을 겨루는 장이 됐다. STEAM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

로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이번 대회에서 양촌초등학교, 노성중학교에서 금상을 수상해 도대회에서 타지역 학생들과 역량을 겨루게 됐다. 이진구 교육장은 "STEAM교육이 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사설

홍익인간에 친일프레임 덧칠? '편협한 역사관'... '괘변'

최근 교육기본법 상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에서도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홍익인간 이념은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명시돼 72년간 우리 교육의 핵심기초로 자리 잡았으며, 고조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념·정파성을 띤 몇몇 국회의원과 연구진의 논리로 제한하면서 일방적인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과정 총론 변경만으로 결코 삭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 4월 19-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등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73.4%가 '반대'했다. 80.4%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의 기구를 통해 합의 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 용역연구에서처럼 편향 인사 중심의 21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짜지우지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연구의 주된 내용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및 민주시민교육추진법 제정 추진, 그리고 수년 전부터 같은 이념 성향의 교사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 정파 세력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구축돼 교육이념과 핵심 가치 일체를 '민주시민'으로 바꾸려는 전방위적 시도가 있어 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확정 하였다.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고, 더욱이 민족주의 이념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고기(古記)』의 단군신화를 인용해 『삼국유사』에 실린 말로 시작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대표적 가치이기도 하다. 정인보, 권태의 선 각자는 이미 홍익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신을 세우나 만큼, 이내 전민적 공통의 교의(敎義)로 널리 또 깊게 퍼지며 내 려온지라...라며 민족사 개창기의 개국정신으로 홍익인간을 주목했다. 특히 김구 선생은 저서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고 홍익인간 사상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홍익인간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채택된 시기는 광복 이후다. 미군정하의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안재홍·백낙준 선생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가 『삼국유사』나 『세왕운기』보다 훨씬 옛적부터 전해온 것으로, 우리민족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유물사관론자들은 홍익인간을 신화를 토대로 한 반동적인 관념이라 규정하고, 민주건국이라는 시대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했다. 또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포괄적 관념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1958년 『문교개관』에서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인류의 이상이기에 때문 이라고 밝히며 우리교육, 나아가 국가의 기본 철학임을 확 인했다. 우리는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과 2022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에서 홍익인간을 빼고자 한 것은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인식하는 정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고, 더욱이 민족주의 이념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진천 이월초 총동문회, 어린이날 기념 멋진 야외 활동복 선물



진천 이월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4월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교생에게 멋진 야외 활동복을 선물했다. 이월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해

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의류 및 학용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올해는 야외 활동에 여러모로 유용한 바람막이를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김지은 어린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안병진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 본교 어린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일조하게 돼 보람을 느끼고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금산고, 테마형 융합 교육의 성과 이뤄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특상, 장려상1 수상

금산고등학교(교장 조익수)는 지난 4월 23일 실시된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3학년 김민겸 군(19)과 2학년 고지수 군(18)이 각각 특상(1등급)과 장려상(3등급)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꿈나무를 양성하고자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 탐구력이 향상되는 과정에 가치를 둔

대회이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민겸 군과 고지수 군은 도대회 예선대회를 통과하고 본선 대회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특상에 선정된 것이다. 김민겸 군은 '사고 감지 농업용 ATV'라는 주제로 발명품을 제작하여 출품했고, 고지수 군은

'STANDING UMB'라는 발명품을 제작해 출품했다. 특상을 수상한 김민겸 군은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용 ATV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속한 후속 조치와 2차 사고 예방 방안을 탐구하려고 했던 마음가짐이 특상이라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발명대회 지도를 맡았던 박선영 교사(생명과학)는 "특상 수상은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열정,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3박자가 일궈낸 성과"라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인사>



CTN·CTN교육신문 논설위원 안창현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창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D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전화: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32416] 충남 예산군 삼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041-337-1791 / 팩스: 041-337-1790  
E-mail: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ctnews.kr

구독료: 월 1만2000원 / 자매지 월간총합

본지는 충청남뉴스네트워크 CTN이 발행하며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